

# 도자기에 새긴 불심

## '반야심경' '광명진언' 등 경구 암기 7년간 하나하나 조각칼로 새겨 넣어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중앙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김순자 도예전'에 가면 경전연구들이 전각돼 있는 도자기 7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도자기 사경 작품은 완성된 백자위에 붓글씨로 새겨진 것이 대부분. 이번 전에서 김순자씨(65)의 이번 작품들은 독특하다. 경구들을 쓴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새겨 넣었다. 김씨의 작품을 대하면 '종이위에 글씨로 새겨놓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자기에 새겨 넣었을까' 하는 탄성이 절로 난다.

### 김순자 도예전 24일~5월 3일까지

이 작품들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반야심경', '광명진언', '대원성취진언', '참회진언' 등의 경구를 김씨가 모두 다 암기해서 한 문으로 옮겨적었다는 것이다.

"전각 작업에 들어가기 전 수없이 반복해 경전을 암송하며 새겼다"는 김씨는 현재 팔이 부어오른 상태다. '반야심경' 작품을 만드는 데만 하루 10시간씩 총 1백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고된 작업 탓이다.

"나이 60이 넘어 눈도 침침해서 하루동안 작업하면 그 다음날은 쉬어야 다음 작업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작품을 만드는 데만 한달이 넘게 걸리는 강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1주일 전 벽

제의 작업장에서 만난 김씨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비결이 있을까.

"6년동안 여름과 겨울 한 철씩 안거를 마치고 나온 기본입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경구들을 새겨 넣는 작업은 화두를 들고 웅팽 정진하는 것과 같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싹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화두를 시원스레 풀어냈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더군요"라며 즐거워 한다.

김씨의 작품들을 열핏 보면 겹겹이 그을린 나무위에 전각을 해놓은 것 같다. 유약의 마술이다. 아이보리, 검정, 그린, 브라운 등 47가지 이상의 유약을 초벌구이 후에 발라 10시간 이상 다시 1300도에서 재벌구이를



◇도자기에 경전연구를 새기는 작업은 또다른 수행이었다는 도예가 김순자씨가 자신의 작품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하면 높은 열에 의해 유약이 녹아 흘러 다채로운 모양을 빚어낸다.

"도예는 파손율이 높습니다. 이번 전을 준비하는 작품을 위해 가마에 빚은 도자기만 5백개가 넘지요. 그래서인지 작품이 완성되면 새 생명을 입태한 것처럼 소중하게 지켜 집니다." 김씨가 7년동안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며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10년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중앙문화센터에서 들어온 '불교문화의 숨결' 강의 덕분이다.

정병조·권기종 교수 등 불교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며 심신을 다져 온 것. "경구를 새겨 넣는 도자기 전각전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일

입니다. 나이가 들어 글씨를 새기는 작업은 더이상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이 아닌 종이에 새겨서 불교공부를 하는데만 쓸까 해요." 김순자씨는 이번 전시에 앞서 8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92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승무·나비춤·입춤 등 공연

### 법우 스님 5월 2일 전통춤 시연회

법우 스님(대전 현불사 주지·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의 전통춤 공연 '초지일관'이 5월 2일 저녁 7시30분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승무를 비롯해 기원무, 입춤(허튼춤), 장검무, 나비춤, 선비춤,

살풀이춤을 선보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승무와 나비춤. 모두 스님이 제일 자신있어 하는 춤들이다. 특히 긴 소매자락을 휘날리며 두 손을 활짝 벌리며 추는 스님의 나비춤은 울동이 크고 화려하다. 또 스님이 우봉 이매방 선생(승무·살풀이춤 예능 보유자), 우봉 전통무용보존회원과 함께 추는 입춤은 호남 지방예술의 전통미를 잇는 세련미와 요염한 교태미가 흘러넘쳐 신명나는 무대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042) 221-3395. 김주일 기자



◇살풀이춤을 시연하고 있는 법우 스님.

## 가볼만한 전시회

### 목판에 새겨넣은 불교향기

#### 정비파 목판화전 대구서



◇정비파씨의 '불향V'

정비파 목판화전이 대구 북성갤러리에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다.

대구불교방송 증계소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불향(佛香)'이다. 제목이 말해 주듯 작품 곳곳에는 불교의 향기가 스며 있다. 대부분의 작품 중앙에는 직사각형의 하얀 여백이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 30여명의 동

자승과 활짝 핀 20여송이의 연꽃, 붉고기가 매달린 풍경, 차 마시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새겨 놓았다. 가는 연필로 그린 듯 조각도가 지나간 자국은 가늘고 섬세하다. 또 파란 단색 목판 위에 후철로 채색한 혼합 기법을 사용한 이번 작품들은 한쪽의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향 I, II, III...', '다향 I, II, III...'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053)421-1516.



◇일필휘지로 법구를 쓰고 있는 석주 스님.

### 일필휘지 법구 130여점

#### 석주 스님 선사화展

석주 스님(월보사 조실)이 5월 1일부터 8일까지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불족 기념 선사화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 스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뜻의 '悟惟知足(오유지족)'과 부처란 곧 마음이라는 의미의 '佛是即心(불시즉심)', 항상 즐거움이 내 마음을 맑게 한다는 '常樂我淨(상락아정)' 등 1백여개를 선보인다. (02511-6070

### 관세음보살 등 색채 화려

#### 스리랑카 세나카 특별展



◇세나카작 '불교수행자'.

사람을식전문점 산촌과 월간 미술세계가 공동으로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 사동 공화랑과 경인미술관에서 스리랑카 화가 '세나카 세나나야케 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나카는 불교의 전통과 전설, 스리랑카의 전통 여인과 꽃 그리고 식물이 지닌 천연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스리랑카 여행중에 세나카의 화풍에 흠뻑 빠져 이루어지게 된 것. 총 천여점을 동원해 그린 여인과 꽃의 모습은 미인도로 유명한 전경자씨의 화풍과 흡사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상', '불교수행자', '드립치는 여자', '새' 등 대작 30여점과 소품류 30여점이 벽에 걸린다. (02)735-0312.

### 방송 프로그램

<b>BBS 5</b> 眞寶방송	<b>hjn</b> 불교텔레비전 <ch 32>
06:05 불교교차	5월 1일 08:40 열린마당
08:30 라디오 열린마당	5월 2일 12:20 쿼츠 야단박석
14:05 네트워크 연결	5월 3일 09:30 설수선의 러빙유
전국은 오늘	5월 4일 07:40 시가 있는 찻집
17:10 명명을 밝히고	5월 5일 13:20 사찰문화여행
20:05 다시듣고싶은 노래	5월 6일 21:40 천성천하유목존
23:05 설며 생각하며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덕신 스님의 삶며 생각하며(5월 5일 12:05-01:00) -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심야프로그램 '덕신 스님의 삶며 생각하며'에서는 희망이 있는 세대, 하지만 진지한 고민도 함께 하는 세대인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본다. '탈릭 베스트 검색어' 코너에서는 한 주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이슈들을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를 통해 다시 살펴본다.
- 불교텔레비전**: △사찰문화여행(5월 5일 13:20-14:20) - 이번 주 사찰 문화여행에서는 요사채에 대해 알아본다. 요사채는 사찰 내에서 스님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건물을 총괄하는 명칭. 수행하기 위한 공간인 선원외 강원, 율원이 있으며 스님들의 의식주를 뒷받침하는 생활공간인 연화실과 부의, 객실, 해우소 등이 있다.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면 5월 30일까지 장수호두 약돌 1set를 드립니다.

#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부드러운지압을 장수호두약돌(소) 강함 지압을 장수호두약돌(대)

**악귀와잡귀들이보기도한도망치는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사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도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 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일 날부터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게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지켜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러 됩니다. 첫번째는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금강의 강한기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입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무료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월 금액 195,000** \*기도장전 하시는 스님께서는 청심을 사용하신다를 지켜주세요.



##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어들고 하얀 얼굴도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소화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건강정보 장수 호두약돌

황토생명공학 센터에서 황토와, 음이온, 원적외선, 기(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님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내리력을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기를 발산하고 건강 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활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기를 체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분, 수술을 받으신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